

# 강진산 파프리카, 중국 수출길 열어

### 중국바이어 팸투어단 농업회사 탐진들 방문 유리온실 견학 및 친환경 재배농법 설명회

지난 3일 중국 신선식품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7개 업체 11명의 바이어로 이루어진 '파프리카 중국 팸투어단'이 강진군 파프리카 주 생산지인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at(한국농수산식품공사) 주관으로 국내산 파프리카를 중국 주요 신선식품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소개하고, 중국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과 최고급 품질의 프리미엄 한국산 파프리카를 중국 바이어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프리카 중국 팸투어단' 구성은 BHC(베이징화리엔그룹), 춘보, 강소성채소유통협회, 무즈무무북경과기유한공사, 내퉁고식전미상품물류법인, 신덴위임북경무유한공사, 삼성웰스토리(중국법

인)의 7개 업체에서 11명의 중국바이어가 참석해 파프리카 생산 시설인 최첨단 유리온실 견학과 친환경적인 재배농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품질과 맛을 시식하며 이번 행사는 전국 파프리카 재배지중 대표로 농업회사법인 탐진들을 방문해 강진군의 파프리카 생산력과 최고급 품질을 입증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강진군의 파프리카 재배지는 총 15.1ha로 연간 2,171톤을 생산해 내수용 53%, 수출(전량 일본) 47%로 연간 매출액 72억을 달성하고 있다. 2020년까지 6ha의 스마트팜 첨단 유리온실을 확대하여 총 21ha에 3,600톤의 생산 면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파프리카 수출협상은 2007년 검역 협상이 시



작된지 12년 만인 올해 11월 13일 양국이 검역 요건에 합의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됐고, 이어 중국 바이어가 초청된 가운데 이번 행사가 이루어져 조만간 대중국 수출이 임박함을 전망했다.

(사)한국파프리카 자조회장을 맡고 있고 우리지역 파프리카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명동주 대표는 "현재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향후 파프

리카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중국 파프리카 수출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원예농가 경영안정화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며, 급후 수출 선과장, 재배온실 등록에 대한 중국측의 최종 승인과 식물검역 절차를 거치는 등 관계기간과 다각적으로 협력하여 우리군 최고급 프리미엄 파프리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강진=김영일 기자

## 완도군,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3일 시범사업 농가와 농업인 학습단체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올해 새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아열대 과수 안정생산 시범 등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64개소에 사업비 9억 36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번 평가회는 분야 별로 추진했던 농촌지도 시책 및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0년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늘 묵묵히 애써 주시는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올해 추진했던 시범사업의 성과는 완도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완도자연 그대로 농산물을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 산업에 제공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더불어 농·수·축산업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평가회를 통해 2020년 사업 방향을 완도자연 그대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소득 작물 보급과 농업 경영체의 자립 역량 강화,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한 치유농업에 활용될 작물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완도=김명수 기자

## 함평,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공모 선정

함평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임피 희망빈집 재생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돼 총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하반기 공모에 참여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1·2차 심사과정(서류·발표)을 거쳐 총 6개 시·군을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함평군은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주거복지사업을 신청, 이번에 확보한 사업비를 통해 귀농귀촌인·청년예술가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주택을 임대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사업과 소득지원 일자리 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과 이주민간의 마찰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함평=김명준 기자

## “무안군 주민 건강, 보건진료소가 지켜요”

무안군은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각 읍·면 보건진료소에서 2019년 사업 결산 및 2020년 보건진료소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해 사업을 같이 무리 하고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운영협의회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마을주민 등 운영협의회원 417명이 참여한 간담회는 2020년 군

보건소 보건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주요사업을 홍보하며, 보건진료소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협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됐다.

군 관계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보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게 운영해 건강한 무안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장흥고, 다문화가정 어머니 방문 후원

다 나라에 대해 바르고 건강한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이다.

이번 친정 방문을 하게 된 멘티 학생의 부모님은 "아이가 매월 2-3회 훈민정음 동아리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고맙고 자랑스러웠다"며 "아이와 함께 친정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정 지도교사는 "친지들을 만나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이번 방문 활동을 통해 멘티 학생이 엄마 나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모님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장흥고는 장흥군가족센터와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진도군서 12명 천연염색자격증 취득

진도군 생활개선 천연염색연구회 회원 12명이 최근 천연염색 자격증을 취득했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회원들은 바쁜 농사철임에도 주 1회 자격취득 교육과 필기 시험을 2년동안 준비해 응시자 12명이 전원 합격했다.

1급 6명, 2급 6명으로 2급 합격자는 내년에 1급 자격시험에 도전할 계획이며, 자격증 취득으로 농업 6차 산업화 및 농촌 관광 소득 연계 사업에 활성화가 예상된다.

진도군농업기술센터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의 모임체인 회원들은 최근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3층에서 열린 천연염색 자격증 수여식에 참석했다.

자격증 수여는 천연염색 명인전이 열린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천연염색연구회원들은 자격증 수여식과 함께 천연염색 명인전을 관람하면서 전국의 천연염색 우수 작품을 벤치마킹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